

이야기 3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!

주제말씀

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
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
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
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.
[누가복음 2:49]



“나는 데이브야. 마리아를 태우고 베들레헴까지 데려갔던 바로 그 작은 당나귀야.
어느덧 예수님은 열두 살이 되었고, 우리는 매년처럼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갔단다.
그런데 이번 유월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어.
마리아와 요셉은 왔던 길을 따라 이곳저곳을 찾아보았지만 예수님을 찾을 수 없었지.
예수님은 성전에 계셨어. 율법 선생님들 사이에 앉아 질문을 하고, 또 대답을 하며 이야기를 나
누고 계셨단다.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의 지혜와 깨달음에 깜짝 놀랐어.
마침내 부모님이 예수님을 찾았을 때,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.
‘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셨나요?’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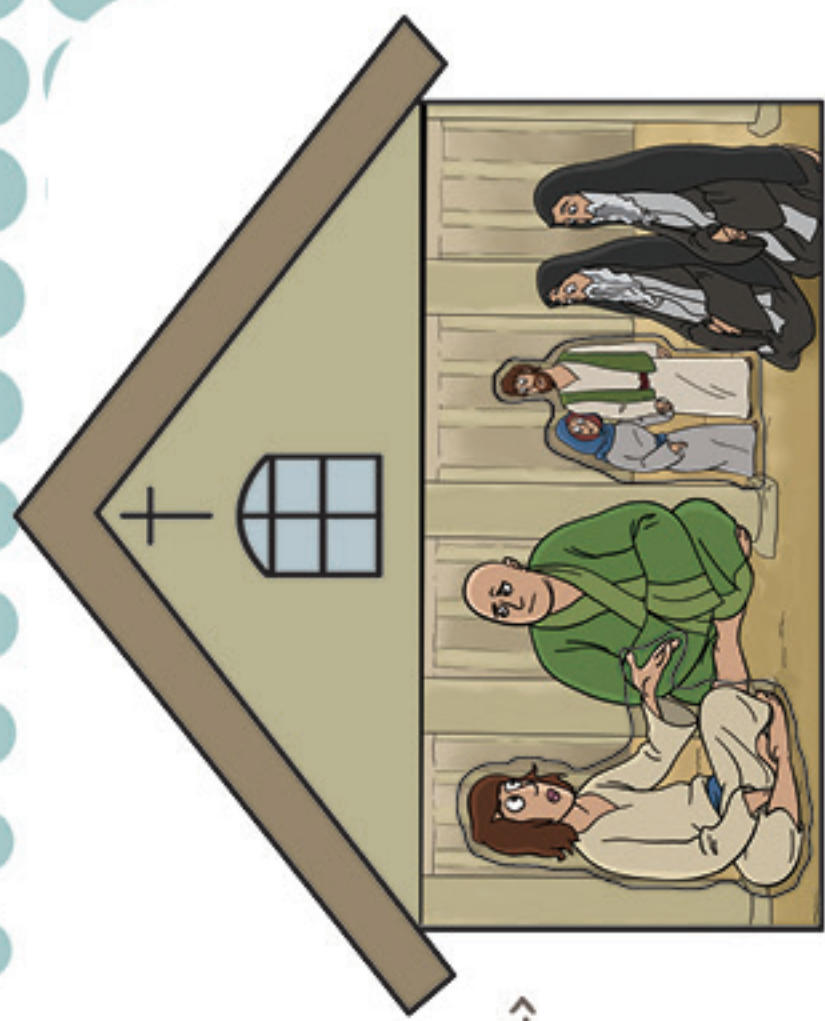
활동 1

순서대로 따라 해보세요.



준비물: 가위, 풀.

- 1 예수님 그림을 오려서 붙인다.
- 2 예수님을 찾고 있는 마리아와 요셉도 오려서 붙인다.
- 3 예수님이 왜 성전에 계셨는지 함께 이야기 나누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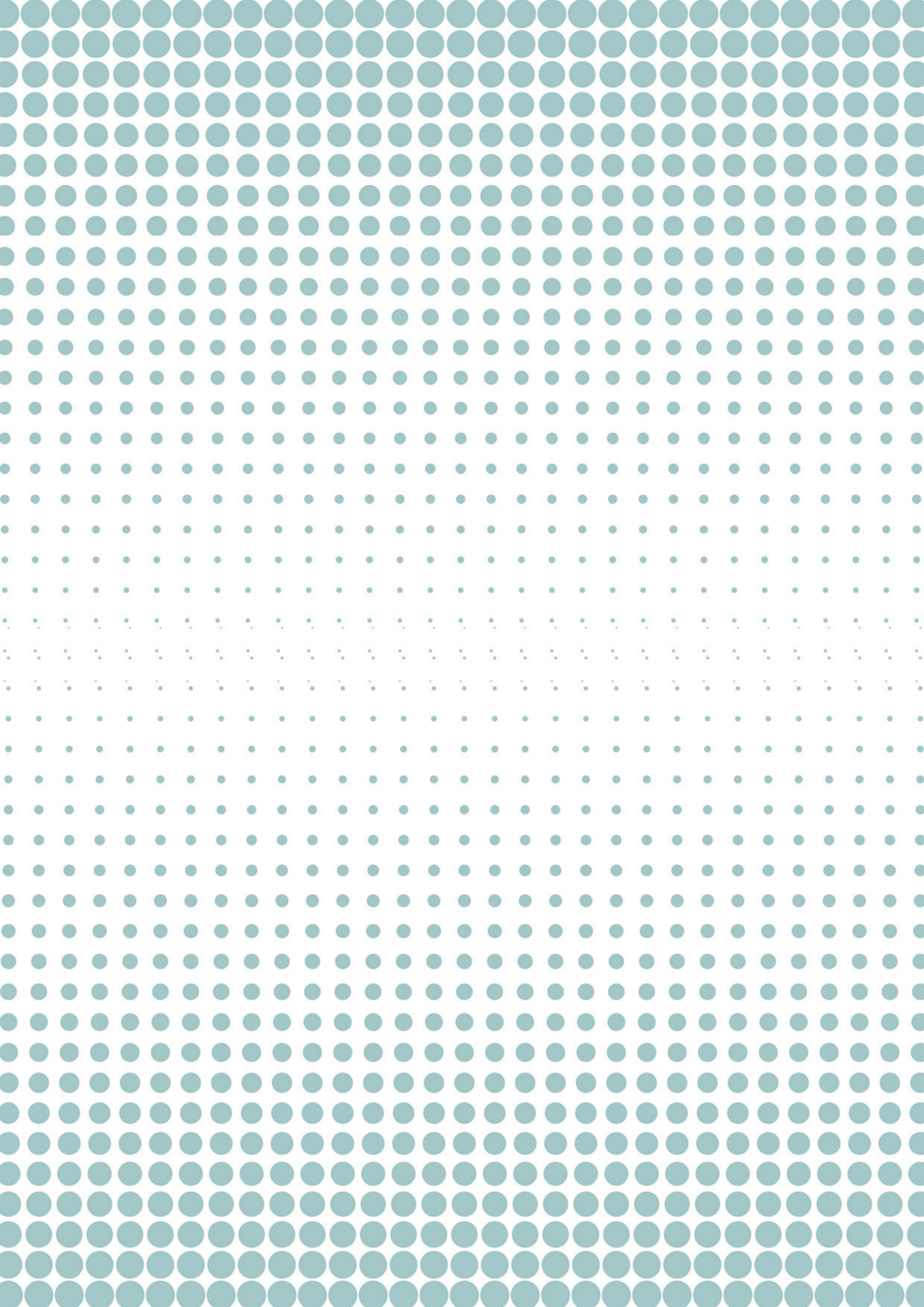
완성된 이미지 -->



마리아와 요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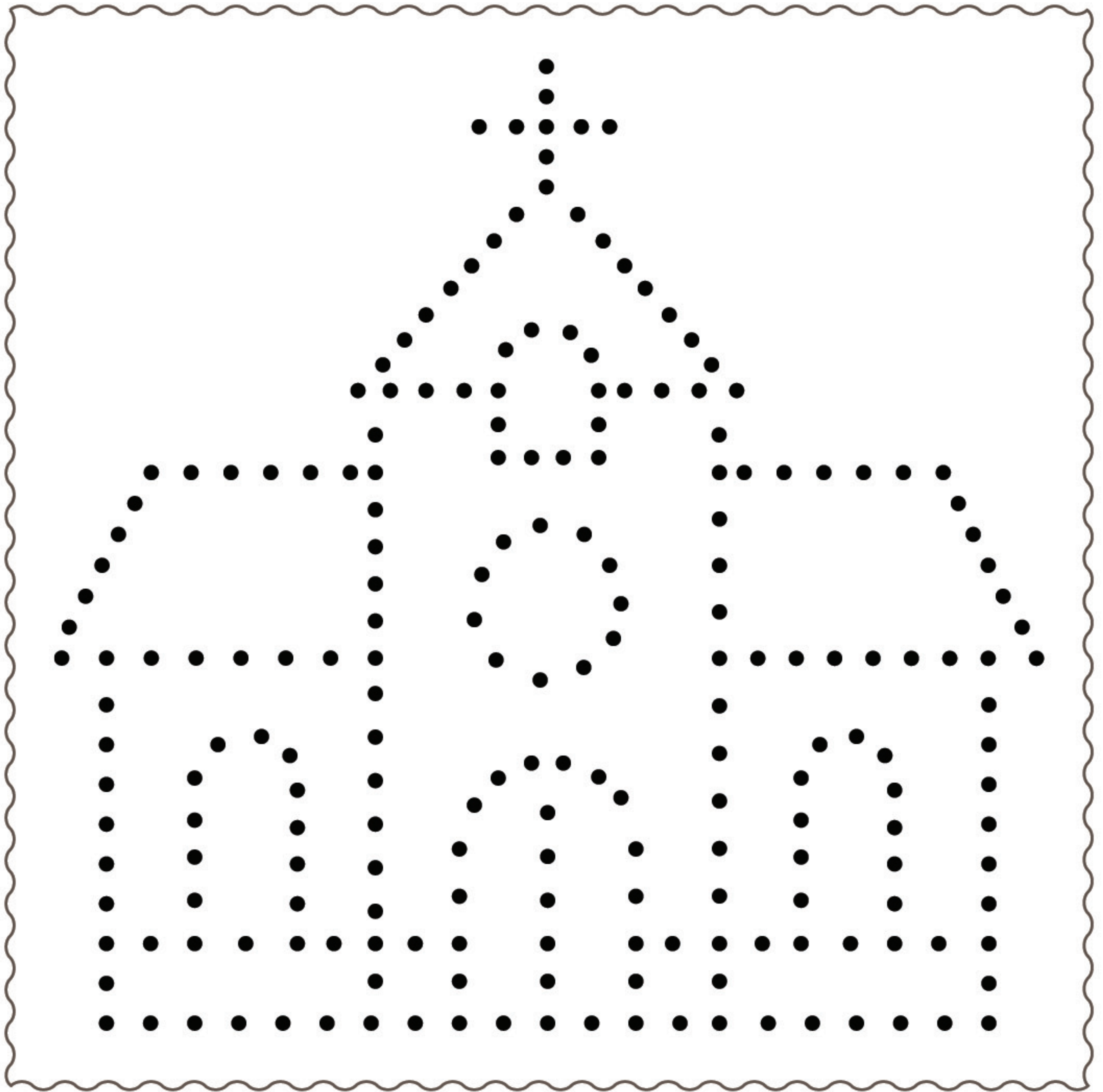


예수님



활동 2

점들을 연결해 교회를 완성해 보세요.



다음 성경 구절을 따라 쓰고 암송해 보세요. (누가복음 2:49)

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
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
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